

광주·전남 현역의원 14명 지역구 수성 가능할까

민주당 '정치신인' vs '중진의원' 대결 관심 민주당 지지율 고공행진 속 '경선 후유증' 변수

광주·전남지역 제21대 총선에 후보 87명이 등록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 18명 중 14명이 지역구 수성에 나서 생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광주·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 광주 42명, 전남 45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다.

지역구는 광주 8곳, 전남 10곳으로 현역 국회의원 18명 중 14명이 재도전에 나섰다.

조선인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은 나주·화순 경선에서 신정훈 후보에게 패배해 출마가 좌절됐다. 재선인 권은희 의원

은 국민의당에 입당해 광주 관산을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고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며, 4선인 민생당 주승용 의원은 야권 분열에 대한 책임감을 표명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또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아있던 3선의 이정현 의원도 지역구인 순천에서 출마를 포기했다.

제21대 총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인 송갑석(서구갑),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 등 3명이다.

민생당은 장병완(동남갑)·박주선(동

남을)·전정배(서구을)·최경환(북구을)·김동철(광산갑)·박지원(목포)·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윤영일(해남·완도·진도) 의원 등 8명이 포함됐다.

무소속으로 총선을 치르는 현역 국회의원은 김경진(북구갑)·이용주(여수갑)·정인화(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 등 3명이다.

광주·전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 우세가 점쳐졌으나, 최근 경선 과정에서 각종 비방과 고소·고발이 제기되는 등 후유증이 나타나 민심이 어디로 쏠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현역의원이 3명에 불과하고 대다수 후보가 정치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생당 중진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의 수성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근산·황애란 기자



이상익·김성호·신경선·정두숙·정철희 등 5명

함평군수 보궐선거 후보등록 마감

여수·순천·함평 지방의원 재선거도 접수

4·15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등록도 지난 27일 마감됐다.

선관위 후보등록 결과, 함평군수 보궐선거에는 모두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익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민생당은 김성호

전 전남도위원이 접수를 마쳤다.

무소속으로 3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신경선 전 함평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정두숙 전 KBS PD, 정철희 전 함평군의회 등이 도전했다.

전남지역 기초의회 재선거도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여수시의회 나선선거 재선거에서는

모두 3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권석환 후보, 민생당 최장남 후보, 무소속 최재중 후보가 경쟁을 펼친다.

순천시의회 사선거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오행숙 후보, 무소속 김일중 후보가 나섰다.

함평군의회 가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준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했다.

/정근산 기자

정기 브리핑

박지원 “재난소득, 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

민생당 박지원(목포) 후보는 29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가 재난기본소득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추경안 통과 후에도 ‘추경에 추경을 더 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취약계층에 대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며 “정부와 여당에서도 총선 후 2차 추경을 검토하고 기업도산을 막기 위해 100조원을 풀겠다고 하는데, 저는 재난기본소득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목포시처럼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국가가 재난기본소득



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면 소비진작도 되고 취약계층 생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분들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광주 군공항 조기이전 ‘3대 해법’ 제시

민생당 천정배(광주 서을) 후보는 29일 ▲국회 광주군공항상생이전협의체 구성과 이전촉구 결의안 제출 ▲군공항 이전특별법 개정 ▲국무총리실 산하 이전추진단 설치 등 광주 군공항 조기이전 ‘3대 해법’을 총선 6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천 후보는 군공항 이전 해법으로 “광주

·전남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모두 참여하는 ‘광주 군공항상생이전협의체’를 구성하고, 발전 청사진을 공유해 군공항 이전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지역 주민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와 함께 이전절차를 신속화하는 ‘이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속도



감 있게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광주·전남의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이전들을 신속하게 조정하면 군공항 이전사업이 더 빨리 완수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남구 AI 교육특구 프로젝트 ‘착착’

민생당 장병완(광주 동남갑) 후보가 발표한 ‘남구 인공지능(AI) 교육특구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장 후보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교육 시범운영 학교로 남구 빛어울초·진남중 등 6곳과 소프트웨어(SW)

교육 선도학교로 광주 송원초·대성여중·송원고 등 40개 학교가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장 후보는 “AI교육 시범운영 학교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며 “AI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부터 소프트웨어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초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윤 기자

4·15 총선 후보에게 듣는다

김경진 무소속 광주 북구갑 후보



김경진 무소속 광주 북갑 후보는 “4·15 총선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특정당에 소속되기보다는 ‘사람 김경진’ 그 자체로 주민들의 재평가를 받고자 한다”면서 “삼수 끝에 국회의원이 돼 지난 4년간 광주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총선의 의미는 속죄와 재평가”라고 규정하며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낙후된 우리 지역의 재도약

성화 및 국내외 대기업 데이터센터 유치와 함께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분야 특화연구지원(규제프리존 설정 등), 지역대학 졸업생 인공지능 산업단지 특별 채용 등 일자리·창업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역 일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김 후보는 “20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며 ‘광주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을 이끌어 내면서 광주역 일대 개발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재개발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광주와 대한민국 발전 위해 다시 일할 기회 달라”

“밥값 제대로 하는 정치”... AI수도 건설 등 공약

과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선 그 누구보다 뛰어난 정책 추진력과 통찰력을 가진 유능하면서도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선거의 의미와 각오를 밝혔다.

그는 “갑증된 추진력과 끈기 하나로 광주와 대한민국 발전을 일궈낸 ‘김경진’을 믿고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오늘이 힘들고 내일은 걱정뿐인 서민들의 저녁이 따뜻하도록, ‘밥값 제대로 하는 정치’를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대표공약으로 ▲인공지능수도 광주 건설 ▲광주역 일대 개발 활성화 ▲무등산·광주호 일대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일대 공공개발 ▲말바우시장 관광개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수도 광주건설 공약 세부내용과 관련, 그는 “AI 산업단지 투자활

도시재생·재개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 그리고 과기정통부 실·국장은 물론 담당 사무관까지 만나며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 달라고 설득에 매진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인공지능을 전문으로 연구·육성하는 거점도시가 우리도 필요한데, 그 거점도시로 광주가 제격이며, 광주에 AI산업단지 조성될 경우 낙후된 호남의 산업경제지도 가뻐짐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

된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은 우리 이웃 목소리를 들어주고, 또 이를 대변하며, 지자체 힘만으로는 벽찬 지역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조력을 이끌어 내는 자리라 생각한다”며 “지난 4년간 ‘북구갑 국회의원’으로, ‘지역인권’으로 활동하다 보니 국회의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아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난제 또한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앞으로 4년도 대한민국과 광주를 대표하며 황소처럼 우직하게, 또 늘 한결같이 겸손하게 일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누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또 ‘어떻게’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지를 잘 판단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재차 지지를 요청했다.

/서울=강병윤 기자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제20회 5·18 마라톤대회

일시: 2020. 5. 23 (토) 집결 08:00, 출발 08:50

장소: 광주상무시민공원(운동장)

종목 및 참가비: 5.18km 10,000원, 10km, 하프코스, 30km 30,000원

접수기간: ~ 2020년 4월 24일(금) ★ 현재접수중 ★

접수방법: 전화, 팩스, 518run.com, 0518run@hanmail.net

문의: TEL (062) 720-1099, FAX (062) 720-1020

카카오톡 문의 ID: jndnnews

주최: 518기념재단, 전남매일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남주시, 국가보훈처, 광주은행, 518군속부상자회 전라남도지부, 골드총합건설(주), 보광총합건설(주), 골드클래스(주), 골드더유(주)